

##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지난 모양

콘노 유키

그 옛날에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지금은 없다. 지금은 도쿄, 당시에는 에도로 이어져 있던 이 길에는 지금, 크고 작은 차량이 지나간다. 흐름은 잠시, 신호가 바뀐다. “내일 또 보자.” 친구에게 손을 흔든 초등학생 뒤에, 오래된 목조건물이 보였다. 그 옆에는 새로 연 듯한 가게가 보였다. 흰색 옆에 갈색, 갈색 옆에 흰색.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패턴. 신호가 다시 바뀌자 발걸음과 목소리는 지나가는 소리와 일체가 되었다. 옛날에 이 길을 걸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직도 눈부신 하늘 아래, 가을로 서서히 옮겨가는 듯한 톤이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보니, 우라와 역에서 이쪽으로 걸어가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다. 크고 작은 집들 사이에 멀리, 고층 아파트가 조용히 서 있다. 전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걸어다니다 보면 하나둘 떠오르겠지. 왠지 여름에 온 것 같았다. 그때는 지금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그래도 눈에 비친, 그 선명함을 잘 간직했겠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불꽃이 머릿속에서 튀었다—덥고 습한, 불꽃놀이를 같이 했던 적의 기억? 정확히 이곳이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 때와 저때가 교차하면서, 걸음걸이는 그때를 이곳에 만들어 간다.

오래된 것과 오래되지 않은 것이 교차하는 이곳에, 차승언의 작품이 걸려 있다. 이전 건물에 새로운 면모가 가미된 ‘츠키노미치쿠사’라는 장소에 직조된 시간이 켜켜이, 또 겹겹이 쌓여 있다. 차승언의 작품도 그렇다. 작품은 직조라는 방법을 통해 가로는 세로를, 또는 세로는 가로를 만난다. 도형과 다른 도형이 겹치고, 평면은 튼튼하다. 이 평면에 스며들듯이, 그러면서도 부유하듯이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섬유가 그렇듯이, 가까이서 보면 들쭉날쭉하지만 표면으로/에 형상이 안정감을 유지하는 곳, 그것이 차승언의 작품 <Moon Detour>와 <Blue, Purple, Scarlet>이다.

각자, 머무는 자리에 있었다—파괴와 계승이, 오래됨과 새로움이, 유지되어 온 시간과 새로 태어난 시간이다. 어쩌면 상반되는 것들이 여기에 함께 살아 있는 것으로써 머문다. 츠키노미치쿠사 근처에 있는 신사에는 과거에 태풍 피해를 당하여 훼손된 비석이 복원되어 있었다. 물든 하늘에 재개발 지역 공사장 소리가 퍼졌다 이내 사라진다. 이곳—작품과, 작품이 걸린 곳과, 작품이 걸린 집이라는 곳은 언뜻 보면 들쭉날쭉해 보이지만,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방향과 시간에서 온 것들이 교차하는 곳. 그것이야말로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지난 모양이다.

いつの間にかそうして、時間が経ったもよう

紺野優希

その昔、この道を通っていた人々は、今はもういない。今は東京、当時は江戸につながっていたこの道には、大小の車両が通りすぎる。流れがとまり、信号が変わる。「また明日。」友達に手を振っていた小学生の後ろ、そこには古い木造建物が見えた。その隣には新しくオープンしたようなお店が見えた。白の横に茶色、茶色の横に白。垂直的で水平的なパターン。信号が再び変わり、足取りと声は通りすぎる音と一つになった。かつて、この道を通った人々は、どんな考えごとをしながら歩いていたのだろうか。まだまぶしい空の下、秋に徐々に移り変わろうとするトーンは、しっかりとしているように、見えた。

そういえば、浦和駅からこちらに歩くのも久しぶりな気がする。大小の家々の間、その先に遠く、高層マンションが静かに立っている。前ここに来た時は、どんな考えごとをしていたのだろうか。歩いていけば、一つ二つ思い浮かんでくるだろう。あれは、夏だったような気がする。今よりも小さかったあの時、でも目にしっかりと映ったその鮮明さを、大切にしまって、今こうして見ているように。花火が頭の中ではじけた——暑くてじめじめした、花火を一緒にしに来たときの記憶だろうか。この場所だったのかは、分からない。今となっては、時がずいぶんと経った。いまとあのころが交差しながら、かつてその時を、足取りがここに作っていく。

古いものと古いものが交差するここに、チャ・スンオンの作品が展示されている。昔の建物に新しさが加えられた「つきのみちくさ」という場所には、折り重なった時間が幾重にも積み重なっている。チャ・スンオンの作品もそうだ。彼女の作品は織物として、横は縦に、または縦は横と出会う。図形と別の図形が重なり、平面はしっかりとしている。その平面に溶け込むように、また他方で浮かびあがるように、イメージが見えはじめる。繊維がそうであるように、それは近くで見ると凸凹している。でもまた表面で、表面として、かたちが安定感を保っている、そういう場所だ。チャ・スンオンの作品「Moon Detour」と「Blue, Purple, Scarlet」も、そうだ。

各々、とどまる場所にいた——破壊と継承が、古さと新しさが、維持し続けてきた時間と新たに生まれ変わった時間が。もしかすると、相反するものがここに、共に生きているものとして、とどま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つきのみちくさ」の近くの神社には、かつて台風で損壊した石碑が復元されていた。色づいた空には、再開発の工事現場の音が広がっては、忽ち消える。ここ——作品と、作品がおかれたところと、作品のおかれている家というところは、凸凹していながらも、安定感を保っている。異なる方向と時間から来たものが交差するところ。それこそが、いつの間にかそうして、時間が経ったもようだ。

## **Before we knew it, time had passed like this**

Konno Yuki

In the old days, the people who used to pass by this road were no longer here. On this road that once connected Edo and now links to Tokyo, large and small vehicles pass by. The flow is temporary; the signal changes. After waving goodbye to a friend,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 saw an old wooden building. Next to it, a newly opened store was visible. White next to brown, brown next to white. Vertical and horizontal patterns. When the signal changed again, footsteps and voices blended with the sounds of passing. What did people think when they walked on this road in the past? Even now, under the dazzling sky, it seemed to shift slowly into autumn, looking solid.

Come to think of it,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walked from Urawa Station in this direction. Far away, between the big and small houses, high-rise apartments stand quietly. What did I think when I came here before? As I walk, memories will come back one by one. Somehow, it felt like I came in the summer. Back then, I was younger than I am now, but I must have preserved that clarity that I see now. Just like I'm seeing it now. Sparks flickered in my mind - memories of a hot and humid fireworks display we attended together? I'm not sure if this was the exact place. A lot of time has passed now. As this time and that time intersect, my footsteps create that time here.

In this place where old and new intersect, Cha Seungean's works hang. Woven time is accumulated in a place called 'Tsukinomichikusa,' where new facets have been added to the old building. Cha Seungean's works are like that too. Through weaving, shapes meet horizontal or vertical lines. Shapes overlap, and the plane is solid. The image begins to appear as if it is permeating this plane, yet floating. Like fibers, it may look uneven up close, but where shapes maintain stability on the surface, that's where Cha Seungean's works <Moon Detour> and <Blue, Purple, Scarlet> are.

Each had its place - destruction and succession, old and new, time that has been and time that is newly born. Perhaps contrasting things reside here together. Near Tsukinomichikusa, there is a shrine where damaged stone monuments from a past typhoon were restored. The sounds of redevelopment construction echoed in the painted sky and disappeared. This place - a place with works, a place where works are hung, a place where works are placed - may seem uneven at first glance, but it maintains stability. A place where things from different directions and times intersect. That's how it looks as if time has passed subtly.